

- 청소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졸이 행복한 나라

- ▶ 일시 : 2012. 11. 28. (수) 19:00 ~ 21:00
- ▶ 장소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학술회의실
- ▶ 주최 :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 행사 내용 ♣

▶ 개회인사 : 박병춘 (전문직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 계명대 교수)

▶ 토론회

◇ 사회 : 김민남 (경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 발제 1 : 정재형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교육이 고통이 된 나라 -
- ☞ 발제 2 : 김병하 (전직교사)
 - 고졸 전에 자기 정체성 만들기 가능하다 -
- ☞ 발제 3 : 손종현 (교육학 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 교사(학교) 책임 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 -

☞ 객석 자유질의 응답

☞ 전문직단체협의회 참여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대구사회연구소

♣ 모시는 글 ♣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의료, 주거, 실업, 노후의 불안 문제와 더불어 5대 민생 문제라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다른 민생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도 지탄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개혁 정책은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집중하는 일을 긴요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안을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현실적 대책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현실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김밥과 주차권을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